

글 | 김서정(동화작가·아동문학평론가)

2004년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돌이나 상을 받았다. 경사 났다! 우리 부스 하나 없이 남의 출판사만 기웃거리며 사재기에 여념 없다는 비난을 들어온 지 몇 해인가. 이제는 20여 개가 넘는 한국 출판사가 참여해 우리 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두 신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라가치 상'을 받아내는 쾌거도 이루었다. 그뿐인가, 〈뉴욕타임스〉에서 이태 연속 우리 그림책을 최우수 그림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어린이책의 양적인 성장속도와 규모는 충분히 출판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질적인 수준도 그에 상응할 만한 것인가, 하는 그간의 회의적 질문에 어느 정도 당당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외국의 상 몇 개 받은 것으로 우리 어린이책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선, 어린이책 시장을 둘러싼 형편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어느 분야나 다 그렇지만, IMF 지원체제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아우성 소리가 어린이책 동네에서도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엄살기가 약간 섞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새 책 발행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당연히 작가도, 번역가도, 에이전시도 일감이 줄었다. 거품이 걷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창작의욕과 좋은 책 수입 노력까지 꺾이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이 상황을 개선시킬 가장 큰 책임은 다른 무엇보다도 작가에게 있다. 어린이책이 새 세기를 희망차게 맞을 수 있었던 것은 2000년을 전후하여 황선미 채인선 김중미 김영주 이금이 박기범 등의 작가들이 문재작을 속속 내놓았던 덕분이었다. 그들은 우화로, 판타지로, 생활동화로 아이들의 삶과 꿈을 대변해 주거나 이끌어 갔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열광했고, 어른들 사이의 논의는 풍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만큼의 열기와 힘을 찾아볼 수 없다. 눈에 띄는 신진작가도, 기성작가의 새로운 작품도 나와 주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책 작가층은 얇고, 작가들의 저력은 약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주목받은 우리 어린이책이 모두 그림책, 그것도 글이 아주 없거나, 거의 없거나, 전래동화였다는 점에서 우리 동화작가들은 크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작가들이 좋은 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과장은 단순히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출판사는 살아남기 위해 갖가지 손쉽고 상업적인 기획물을 만든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독자들은 우선 솔깃하게 눈이 가는 그런 책들을 집어 든다. 현재 어린이책 판매량 수위를 달리는 책 중에 어른용 경제서나 처세서를 어린이용으로 줄여 놓은 듯한 알팍한 책들이 꽤 있다. 그런 책을 내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것을 압도하는 힘 있는 책을 쓰지 못하는 작가들의 자기반성부터 있어야 한다.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강력한 책, 어른들도 눈을 땔 수 없는 매혹적인 책,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책을 통해 독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우리 어린이책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전적으로 작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책이 나오는 것을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편집자와 비평가의 역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점검해야 한다. 편집자는 보다 넓은 지평을 보는 눈, 그 가운데서 올바른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날카로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비평가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책을 평가하는 잣대를 다양하고도 탄탄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를 비롯한 편집자, 비평가들이 책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린이책 출판의 현황과 과제

수상 소식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들,
문제는 이제부터다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장이 너무나 부족하다. 대학에는 아동 문학파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수많은 문학잡지들 중 어린이책을 다루는 잡지는 겨우 두어 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동문학 이론서도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이다. 이런 황폐한 토양에서 어린이책이 이 만큼이라도 자라온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적에만 기댈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어린이책 관계자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사회 각계의 역량이 좀더 발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독서시장에 사업논리와 체제로 접근하는 도서대여, 혹은 독서교육 회사들의 문제점도 꼼꼼히 짚어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책을 규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손쉽게, 값싸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런 사업체들의 일에는 역기능이 더 많아 보인다. 우선 그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정말 좋은 책을 고를까. 혹시 내용은 그저 그만하면 되고, 되도록 이익이 많이 남는 책을 고르는 게 아닐까. 그런 단체들이 출판사에 책 선정을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할인가를 요구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떠도는 이상, 이런 걱정이 마냥 근거 없지만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내보내는 교사들도 문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4~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들은 독서지도사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침서를 가지고 문제풀이와 탐구방식으로 독서지도를 한다. 그 정도 기간에 어린이책에 대한 충분한 소양을 쌓는 것도 어려운 일일뿐더러,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야 할 독서를 그런 식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책을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책=학습지, 독서=공부라는 인식이 생기기 쉽다. 공부 부담을 잊은 채 자유롭게 머리 속으로 놀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독서의 장이 또 하나의 족쇄가 된다면, 가엾은 아이들은 대체 어디서 설 수 있다는 말인가. 세계에 유례없

는 이 독특한 산업이 유독 한국에서 부흥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좋은 책을 손쉽게 가져다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너무 적다는 데 있다. 있어도 장서는 너무 빈약하고 사서들은 어린이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런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는 수많은 단체, 개인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사재를 털어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는, 문화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원망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남 탓만 하고 있기에는 어린이책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너무 급박하다. 이제 조금씩 그 수준과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어린이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어린이책을 그저 장사 잘 되는 판으로만 치부하는 어른 문학 관계인들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어린이책 독자가 결국 어른책 독자로 자라는 것 아닌가. 어린이책 분야가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야 출판계 전체, 나아가 우리 문화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

